



뮤지컬 '그날들'이 오는 8월 23일까지 서울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사진=KT지니뮤직

명곡과 서사가 빛은 감동 '그날들'

뮤지컬 프리뷰 마치고 3년 만에 공연 디큐브 링크아트센터 8월 23일까지 소통 위해 21일까지 '커튼콜 워크'도

3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그날들'이 프리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 공연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그날들'은 가수 김광석의 명곡으로 빛어낸 감성을 뮤지컬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오는 8월 23일까지 서울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선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탄탄한 스토리와 시대를 초월한 명곡, 역동적인 군무로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원칙과 책임감을 중시하는 경호부장 '정학' 역의 배우 엄기준·류수영·최진혁·김정현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인물의 서사를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오랜 시간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 내공을 보여 온 엄기준은 밀도 높은 감정 연기로 작품을 이끌고, 12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뮤지컬 '그날들' 공연 모습.

돌아온 류수영은 섬세한 표현력으로 새로운 '정학'을 완성했다. 최진혁은 특유의 묵직한 카리스마로 캐릭터에 힘을 더했다. 여기에 첫 뮤지컬 도전에 나선 김정현은 진정성 있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경호원 '무영' 역의 박규원·윤시윤·산들·유선호 역시 개성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무엇보다 30년의 세월 동안 사랑받는 김광석의 명곡이 주는 감동은 유효하다.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등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감동을 주는 작품의 음악과 극적이고 가슴 먹먹한 스토리는 한층 더 깊어진 감동을 전한다.

프리뷰 공연을 본 관객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익숙한 음악이 어우러진 따뜻한 작품이다" "뮤지컬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준 공연" "귀에 익은 노래가 극의 서사와 만나 더욱 깊게 다가온다" "김광석의 노래와 함께한 세대라면 더욱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다"는 호평을 내놨다.

뮤지컬 '그날들'은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한층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21일까지 '커튼콜 워크' 이벤트를 한다. 관객들은 촬영이 제한됐던 커튼콜 무대를 사진과 영상으로 자유롭게 담아 배우들과 함께 축제 같은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 노성수 기자



최유정.

사진=판타지오

최유정 싱글앨범 '퍼펙트 타겟' 발매 4년 만에 솔로 컴백

최근 걸그룹 '아이오아이' 멤버로 큰 사랑을 받는 최유정이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유정이 오는 3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두 번째 솔로 싱글앨범 '퍼펙트 타겟(Perfect Target)'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2022년 첫 솔로 싱글앨범 '선플라워(Sunflower)' 이후 4년 만의 솔로 컴백이다.

최유정은 2016년 엠넷 '프로듀스 101'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활동뿐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최근에는 '아이오아이'가 재결성돼 발매한 '갑자기'로 각종 음원 순위 정상을 밟으며 주목받고 있다.

소속사 SNS에서 공개된 신보 '퍼펙트 타겟' 타이틀 포스터 이미지는 분홍 침실을 배경으로 리본이 돋보이는 아기자기한 소품 등이 사랑스러운 무드를 더했다. 이번 앨범에서 한층 단단해진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성수 기자

'카프리초스' 원작 80점 최초 공개...한국서 '고야'를 조망하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6일부터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이 한국 나들이에 나선다.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전은 세계적인 거장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국내 첫 전시다.

고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판화가로, 근대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왕실 초상화, 풍속화, 종교화뿐 아니라 사회적 풍자 판화, 역사적 사건 기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무엇보다 시대적 현실과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탁월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마녀의 안식일'. 사진=예술의전당

이번 전시는 고야의 일생 전반에 걸친 대표작과 화제작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천재화가의 양면성과 예술적 고뇌를 소개한다. 날카로운 관찰과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탄생한 그의 역작 '카프리초스' 시리즈 원작 80점이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다.

그는 말년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립된 생활을 했다. 고야는 농가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된 채 '검은 그림'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역작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검은 그림' 제작에 몰두했던 공간을 연출해 공포와 절망, 침묵 속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마주한 인간 존재의 심연을 탐구한다.

관람료는 2만 원. 티켓 예매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sac.or.kr)에서 하면 된다. 노성수 기자